

오데사 국립 음대 신문희 교수의 삶과 공간

한국의 마리아 칼라스가 되고 싶은 그녀

러시아에서 동양인 최초의 젊은 여교수로 유명세를 치른 작은 체구의 신문희 교수. 영국의 왕립음악학교, 이탈리아에서 정식 성악 코스를 거친 그녀는, 이제 보수적이면서도 정적인 한국의 클래식 음악계를 활기찬 손길로 노크하고 있다. 그것도 정통 클래식이 아닌 크로스오버 음악으로. 음악인이기 전에 한없이 꿈 많고 여한 감성의 소유자인 그녀가 말하는 '나의 인생과 나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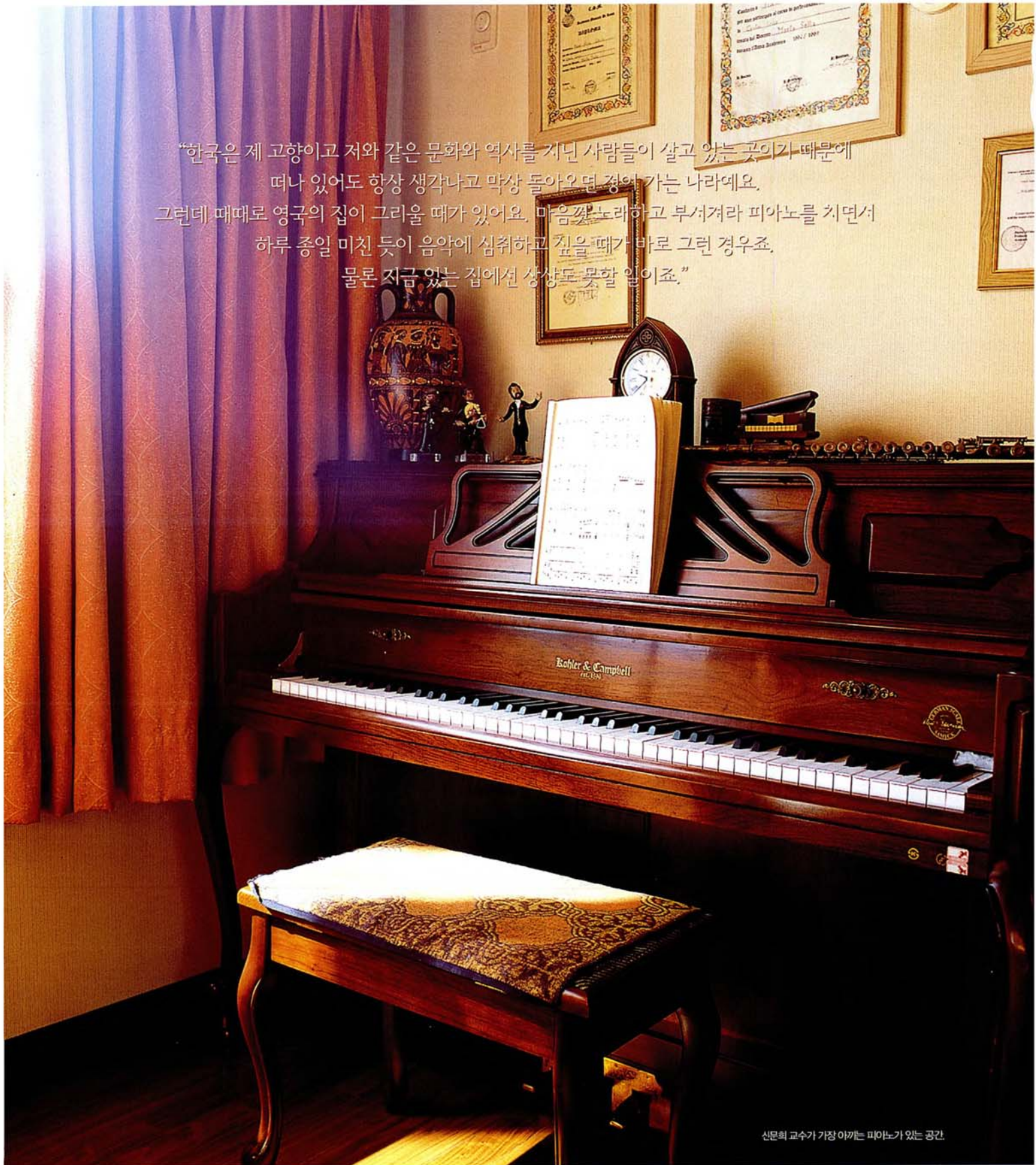
에디터 권희란 사진 양진욱





아담하지만 화려하고 밝은 느낌의 오렌지 컬러와 플라워 프린트의 소파가 있는 거실

“한국은 제 고향이고 저와 같은 문화와 역사를 지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 있어도 항상 생각나고 막상 돌아오면 경이 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때때로 영국의 집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마음껏 노래하고 부서겨라 피아노를 치면서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음악에 심취하고 지을 때가 바로 그런 경우죠.
물론 지금 있는 집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신문희 교수가 가장 가까운 피아노가 있는 공간

우크라이나 오데사 국립 음대 최연소 교수, 최초의 동양인 교수, 이탈리아 빈센조 벨리니 콩쿠르 최연소 심사위원 등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이력을 소유하고 있는 신문희 교수.

봄빛 햇살이 유난히 맑게 내리 쬐는 주말의 한낮에 찾은 신문희 교수의 집은 흰한 잠실 강변의 경치가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을 지니고 있다. 그녀의 집은 70평형대의 빌라지만 방과 거실, 주방, 작업실 등이 독립적으로 분리돼 있어 평수보다 아늑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을 선사했다. 마치 17세 소녀의 방처럼 꾸며놓은 침실은 금방이라도 눕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늑했다.

“어제 밤을 새워서 작업을 했더니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네요, 이해해줘요.” 중성적인 매력과 저음까지 두루 소화하는 넓은 영역의 목소리를 자랑하는 신문희 교수는 알려지가 있어도, 기침을 해도, 비염이 섞인 소리가 나도 그 모습 그대로 ‘풍부하고 세련된’ 음성이다. 아직 서른 살을 몇 해 넘기지 않은 젊은 세대라서 그런지 그녀는 언제나 들뜬 10대처럼 마주 대하는 사람을 즐겁게 한다.

영국에서 러시아, 그리고 서울 “원래 런던에 집이 있어요. 전형적인 영국의 코트야드(Court Yard-주택 안쪽에 있는 뜰)가 있고 방이 총 8개로 구성돼 있죠. 영국의 앤티크 가구와 소품이 가득한 정원이 있는 넓은 단독주택입니다. 부모님은 지금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시고 동생은 미국에 있죠. 저희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요. 워낙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걸 체질적으로 별로 좋아하질 않죠.”

2000년부터 영국 런던에 거주해서인지 신문희 교수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의 빌라에는 영국 앤티크 소품이 장식장과 각종 진열대를 장식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그녀가 러시아, 영국 등 해외를 다니면서 수집한 영국, 멕시코, 미국 등의 진귀한 골동품들. 런던의 집에 다수의 소품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얼마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게다가 이곳 빌라는 실 평수인 70평대에 비해 공간과 공간이 분리돼 있어 실제 원하는 인테리어



음악을 취하기에 더없이 좋은 침실에서 머무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녀.

를 할 만큼 넉넉하지 않다. 그녀의 표현대로 ‘하다못해 그랜드 피아노도 놓지 못해요’ 라고 표현할 정도이니 런던의 집이 그림기만 하단다.

“한국은 제 고향이고 저와 같은 문화와 역사를 지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 있어도 항상 생각나고 막상 돌아오면 정이 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때때로 영국의 집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마음껏 노래하고 부서져라 피아노를 치면서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음악에 심취하고 싶을 때가 바로 그런 경우죠. 물론 지금 있는 집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원래 감정 표현에 익숙하고 상대방이 오해할 정도로 솔직하고 밝은 성격인 데다 힘들게 보냈던 외국 생활 때문에 더욱 개방적인 성향이 농후한 신문희 교수에게 한국 땅은 낯선 스트레스를 주기도 했다.

혼자사는 건 외롭지 않은데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오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더없이 쓸쓸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예전에 어느 라디오 프로에서 크로스오버 음악과 한국의 팸페라 음악에 대한 토론을 벌이다 ‘천부적인 재능을 갖지 않았으면 음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높은 학벌은 능력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동일시하지 말라’ 등, 다소 과격한 발언을 해 진행자의 간담을 조마조마하게 한 적도 있다. 그런 얘기를 거침없이 할 만큼 신문희 교수는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언제나 떳떳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앞으



1 마치 공주가 금방이라도 침대에서 일어날 것 같은 다소 동화적인 침구류와 커튼. 2 런던 집에서 가지고 온 미니어처 백과 구두는 그녀가 아끼는 소품들이다. 생각가면서도 패션이나 리빙 아이템에도 관심이 많은 신문회 교수의 스타일을 알 수 있다. 3 미국에서 구입한 유명한 설치 작가의 작품과 멕시코에서 산 화병, 영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장식장이 있는 한관 입구. 4 신문회 교수의 첫 번째 크로스오버 음반 <Moony>와 미니어처 피아노 소품.

로도 그럴 것이라. 동양에서 온 여자 교수라고 해서 자신을 티부시하고 외면했던 러시아 교수들이나 비교적 젊은 나이에 타국의 국립음대 교수를 지내며 크로스오버 음반을 발매해 '관심' 보다는 '오해'의 시선을 던지던 한국의 무수한 음악인들은 그녀에게 있어 그저 하나의 '장애물' 일 뿐이었다.

“어릴 적 유복했던 부모님 덕분에 음악 공부를 할 수 있었지만 20대로 접어들면서 그런 행복은 사라지고 오직 저 혼자 갈 길을 택하고 꾸러가야 했어요. 영국에서도 홀홀 단신 아르바이트하며 왕립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이탈리아에서 중앙음악학교를 이수하면서, 러시아로 건너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죠. 누구의 후원 때문에, 집안의 명성이나 배경 때문에 신문희를 만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제 스스로의 힘으로 해낸 거죠.”

자신의 의지와 에너지에 의해 한 길만 고집해 걸어온 신문희 교수에게 성악가, 크로스오버 가수, 음대 교수 등 수많은 역할은 하나도 버거운 것이 아니다. 그녀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고 한다. 능력보다는 학벌에 좌지우지 흔들리며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풍토가 있는 한, 그녀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천재 소녀, 밤비나 런던 집에서 우크라이나 오데사 국립음대까지 3~4시간 소요되는 거리라 그다지 멀지는 않다. 비행기를 타고 서너 시간 후 학교에 도착하면 노랫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고요한 분위기에 가끔 압도돼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한다고. 그녀의 말처럼 '딱딱하고 삭막한 공산주의의 방식이 아직도 남아서인지' 우크라이나 국립음대는 학생들의 태도나 표정 자체가 경직돼 있다.

“음악을 하려면 감성이 풍부해야 하죠. 더 중요한 건 마음속에 있는 감성을 끄집어내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생들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학생들은 철저하게 보수적인 데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툴더군요. 전 그런 틀 자체가 싫었습니다. 같이 노래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목청 높여 소리도 질러보라고 했죠. 처음엔 받



신문희 교수의 음악적인 삶이 곳곳에 배어 있는 악보와 플루트, 그리고 인락한 소파.

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따라와주고 있어요.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무뎠던 우크라이나 국립음대 학생들은 이제 그녀를 보기만 해도 싱긋 미소를 짓고 심지어 출장을 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날은 꽃을 들고 마중을 나오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밝은 신문희 교수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정이 쌓여가나 보다.

“전 누구보다 음악에 대한 기본과 열정이 충만하다고 봅니다. 과도한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가 없죠. 에디슨이 말했던 1%의 재능과 99%의 노력이 천재를 만든다는 말도 맞는 격언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몇 프로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자신감도 천재를 만드는 조건입니다.”

사람 사이의 정 쌓기와 아기자기하고 한국적인 영국풍으로 집안 꾸미기 등, 신문희 교수는 할 일이 많다. 끈적끈적하면서도 보이시한 매력 이 숨어 있는 리치 보이스로 정열적으로 무대를 누비는 그녀는 음악계의 영원한 '밤비나' 이다. ☺